

내가 무척 듣기 싫었던 말들 중에 하나는, "성폭력은 평생 남는 상처이다"라는 말이었다. 뭐, 너도 그렇게 쓴 적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걸 내 입으로 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듣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대답 할 테다. 성폭력이 가벼운,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되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마치 내가 평생 울고불고 괴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사선들은 더 참을 수 없었다. 맞다. 나는 고통 받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독 부러지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하거나, 슬퍼 보이고 약해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상한 잣대로 평가 받으며 말의 진실성을 의심 당한다. 그러니까. 나는 괴로움에서,

싸움에서 살아 남았다.

나는 생존자이다. 난 이 세상의 성폭력 피해를 이겨낸 모든 피해자들,

생존자들에게 달려가 지지의 포옹을 날리고 싶다. 언제쯤 "나는 성폭력 피해를 이겨냈어요" 라고 피해자들이 어디서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이 기록을 쓰면서, 나는 처음에 글을 마치고 나면 무척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나보다. 인스턴트 치유, 속전속결

치유. 이런 건 세상에 없는데도. 글을 쓰고 나서도 나는 가끔 기억에 사달리고, 악몽을 꾸고, 사람들에게서 폭력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곤 한다.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게 남긴 용기가 고맙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해자들과, 피해자의

형상을 문제삼는 문제적인 인간들,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우기는 비열한 인간들, 타인의 상처를 자신의 것대로 재단하며 횡포를 부리는 인간들, 이 모든 가해 인간들을 키워내는 이놈의 페니스 사회. 모두 썩어 문드러지길. 내 기록을 읽어준 피해자들의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학내성폭력 中



스 물 세 번 재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449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목차

004 여는 글 | 조이스현

성폭력性暴力

012 어느 생존자의 기록 | 최이슬기

037 성폭력 사건, 이렇게 처리된다 | 최이슬기

054 남성간 성폭력 | 윤이태경

환경環境

072 서울 시민이 꿈꾸는 맑고 깨끗한 청계천... | 윤이태경

092 어떤 에코 페미니스트의 고민과 지향 그리고... | 이만수영

107 커리뱅크 | 윤이태경

민족民族

120 릴레이 인터뷰 낭만적 이상주의와 처절한 리얼리즘의 경계 | 조이스현

148 일본군 성노예 피해여성 | 최김은영

169 만화글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미디어media

182 그남들의 동네 참~ 아름다워라 | 박이경은

206 게시판에 글 올려 보셨어요? | 정성환

218 여성주의자들의 물결이 '일다' | 김문은미

反포르노

232 포르노 왕국 탈출기 | 최김은영

249 비판글 고대문화 9월호 중...를 비판한다 | 조이스현

22집 평가서

256 !와 ?를 던져주는 석순

260 맨땅에 여성주의로 헤딩하기

264 석순을 읽으면 행복을 느낀다

22집 결산안

편집후기